

## TV 동물농장 - 대통령 부부 출연, 제작 자율성 지켜졌나?

### 2023년 2분기 제작편성위원회



2023년 2분기 제작편성위원회가 개최됐다. 제작 실무자 측에서는 류란 전국언론노동조합SBS본부 공정방송실천위원장, 이기현 SBS본부 사무처장, 황성준 시사교양본부 평PD협의 회장이, 제작 책임자 측에서는 박기홍 시사교양본부장, 박상욱 시사교양국장, 주시평 동물농장제작사업팀장이 참석했다.

6월 23일(목), 2023년 2분기 제작편성위원회(이하 제작편성위)가 열렸다. 이번 제작편성위는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TV동물농장> 1,122회 중 대통령 부부 출연의 적절성 여부를 다뤘다.

앞서 지난 5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자신들이 입양한 은퇴 안 내견 새롭이와 함께 출연했다. 해당 방송분에선 대통령 부부가 용산 한 남동 관저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등장하며, 대통령 부부 출연 분량은 총 5분가량이었다. 윤 대통령은 “특수 목적으로 봉사하는 강아지들이 많이 있다”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했기 때문에 치료를 받게 될 때 일정 부분 국가와 사회에서 부담해 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임기 내 관련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묻는 말에는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이 강아지 간식을 만들어 나눠주는 모습과 반려견들과 일상을 보내는 모습 등도 공개됐다.

제작편성위에서 실무자 측은 제작 책임자들을 상대로 해당 방송의 공정성과 적절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제작 과정에서 제작 자율성이 침해된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제작 실무자 측은 “노동조합은 사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측 책임자를 만나 우려를 전한 바 있다. 방송 이후, 대통령 부부 출연에 대해

시청자 항의 등 안팎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내 방송사들 가운데 임기 초의 대통령이 <TV동물농장>처럼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친근한 이미지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인에겐 방송 출연으로 쌓은 이미지가 곧바로 정치적 자산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신분으로 교양·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전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정도를 찾을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7월 MBC ‘느낌표’에 권양숙 여사와 함께 출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책임자 측은 “대통령이 특정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위험성을 내포하지만, 동시에 보도(영역)에서 말하는 단독, 특종의 성격이 있다. 대통령이 비슷한 성격의 타사 프로그램이 아닌 SBS 동물농장에 출연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 프로그램의 위상과 존재감을 말해주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 측에서 SBS 사내 인사를 통해 은퇴한 특수 목적 안내견을 소재로 ‘유기견 입양’을 장려하는 아이টে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

<2면에 계속>

<1면에 이어>

평소 <TV 동물농장>이 천착하고 노력해 왔던 주제였던 만큼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출연자가 대통령 부부라는 점에서 고민이 많았다. 관저를 오픈(공개)하면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해 요구했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한 제작진들의 제작 자율성이 지켜졌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어졌다. 실무자 측은 “방송 사업자로서 SBS가 정치권력과 1:1의 동등한 대응관계가 될 수 없다. 예전처럼 정치권력의 외압은 명시적이고 노골적이지 않다. 제작 과정에서 이뤄진 모든 의사결정에서 충분히 솔직하고 정확한 소통이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책임자 측은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가기 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이 아이템을 한다면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후엔 통상적인 업무 절차, 제작 절차를 따랐다. 제작을 담당할 실무 PD와 작가에게도 혹여라도 (대통령실에서) 무리한 요구가 있거든 안 된다고 하고 오히려 화를 내라, 통상의 절차를 따르라고 강조했다”고 답했다.

지상파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는 하지만, TV 프로그램이 시청



자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막강하다. 정치권력이 이미지 제고와 여론 조성을 위해 시청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자 하는 동기는 크다. 정치권력의 TV 프로그램 출연은 출연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목적성을 띠다고 봐야 한다. 이것이 윤 대통령의 <TV 동물농장> 출연을 단순히 안내견 입양 확대와 처우개선 메시지로만 읽을 수 없는 이유이다. 동시에 SBS 프로그램이 정권의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소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본부장편지

요즘 SBS가 더운 이유



최근 일련의 사측 공지를 보며 무더운 여름 정장에 넥타이를 턱밑까지 끌어올려 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일터에서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삼가고 경계해야 합니다. 퇴근 이후에도 개인의 삶을 엄격히 돌아봐야 하고 동료, 취재원과의 술자리 역시 회사가 정한 기준을 넘지 않았는지 삼엄히 살펴야 합니다. 애매하고 불확실하면 사측에 신고부터 하고 허락을 기다려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보다 회사의 명예를 중시하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권고, 자율을 말하지만, 억압과 규율이 보입니다.

사람을 노동력으로만 여기는 것도 서운한데, 엄벌주의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이제 잘못된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내 의사와 관계없이 구성원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제대로 망신살 뿌치지 않으려면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수치심이 통제와 억압의 도구로 사용돼 온 예는 역사에 차고 넘칩니다.

살아있는 조직의 핵심 조건은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자발적 열의와 도전적 창의는 자율적인 조직문화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통제와 엄벌에 더움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SBS가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3.6.30  
전국언론노동조합SBS본부 정형택 본부장 드림



# 외부 전문기관 통한 성폭력 상담·신고·사건조사 가능해졌다

노사 협의로 SBS 성폭력 예방 매뉴얼과 성희롱·성폭력 징계 내규가 개정됐다(2023년 6월 1일자). 이번 매뉴얼 및 내규 변경과 관련해 가장 큰 변화는 1) 성폭력 상담·신고 및 사건조사를 인사팀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과 2) 사건처리 절차에 '상담' 단계가 추가된 것이다.

## 1)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상담·신고 및 사건조사 가능

그동안 우리 사업장에서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 접수에서부터 사건조사, 인사위 개최와 징계 결정까지 모두 사내 '인사팀'이 일임했다. 앞으로는 피해자(신고자)에게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다. 상담과 신고 접수, 사건조사의 단계에서 사내 인사팀을 통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외부 전문기관은 노사가 각각 추천한 총 2개 기관(노조 추천: 노무법인 해원 / 사측 추천: 노무법인 휴머스)으로 정했다. SBS 구성원 누구나 전화와 이메일, 직접 방문을 통해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개인 부담 없이 회사에서 추후 정산한다. 사건조사 단계까지만 구분될 뿐 조사 이후의 단계, 즉 사건 처리는 기존의 방식대로 인사팀이 담당하게 된다.

단계	담당 기관	주요 내용
상담·신고	SBS 인사팀 or 외부 전문기관	▶ 본인/제3자/신고도우미를 통한 대리신고 가능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신고·상담 가능
사건 조사	SBS 인사팀 or 외부 전문기관	▶ 신고인 보호조치 ▶ 피신고인, 참고인 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 ▶ 외부 전문기관에 접수된 사건은 외부 전문기관에서 조사 진행
사건 처리	인사위원회	▶ 가해자 징계 및 인사발령 ▶ 피해자 사후관리 (불이익 처우 금지 및 심리치료 제공 등)

## 2) 사건처리 공식 절차에 '상담' 단계 추가

그동안 SBS의 성폭력 사건처리 절차에서 '상담' 단계는 따로 기재돼 있지 않았다. 피해자(신고자)가 '신고'를 결심한 사건에 한해서 공식 절차가 시작됐던 것이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신고자)들이 가장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단계는 신고 접수를 망설이는 과정, 즉 '상담' 단계이다.

우리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신고도우미' 제도의 경우 신고도우미 본인이 현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의 역할을 제공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성폭력 사건 절차의 수행은 '신고인 본인'이나 '신고인을 도운 적 있는 동료들' 혹은 사측이 각 본부별로 지정해 운영 중인 '신고도우미'들을 제외하고는 낯설기 마련이다. 그러다보니 소수의 동료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반복적으로 맡아오면서 관련 경험이 특정인들에게만 누적된 상태이다. 노동조합이 그동안 타사의 사례와 학계의 연구 등을 바탕으로 사측에 공식적인 절차로서 '상담' 단계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 <사내 성폭력 사건 대응 매뉴얼 설문조사 (노보 311호, 2020.12.17)>
- <사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현 주소는? (노보 337호, 2022.06.28)>

이번 조치로 외부 기관을 통한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해졌다. 필요한 순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상담·신고를 원하는 경우,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 혹은 메일로 연락하여, SBS 소속 혹은 업무 유관자임을 밝히고 상담 혹은 신고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b>SBS 인사팀</b>	메일 <a href="mailto:boho@sbs.co.kr">boho@sbs.co.kr</a> 전화 02-2113-3115 방문 목동 사옥 21층 인사팀
<b>외부 전문기관</b>	(1) 노무법인 해원 메일 <a href="mailto:haewon23@hwlabor.co.kr">haewon23@hwlabor.co.kr</a> 전화 070-5142-0243 방문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22, 405호 (여의도동, 태양빌딩)
	(2) 노무법인 휴머스 메일 <a href="mailto:a@humuser.com">a@humuser.com</a> 전화 02-754-0651 방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8, 404호 (서초동, 플래티넘타워)

노동조합은 향후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위해 사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신입 조합원을 소개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에 새로운 식구가 생겼습니다. 풍성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주세요.  
신입 조합원님들, SBS노동조합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건호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디어엔지니어 직군으로 SBS에 새로 입사하게 된 김건호입니다. 꿈꾸던 SBS에 입사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지만, 훌륭한 선배님들 밑에서 부지런히 배우는 신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덕형

안녕하세요. 23년 신입공채 미디어 IT팀 입사자 류덕형입니다. 너무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회사에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입사하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배우고 일해 양질의 기술품질, 콘텐츠, 방송사를 만드는 데에 힘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해련

안녕하세요. 2023년 상반기 신입공채로 입사하여 6월 26일부로 미디어사업팀에 함께하게 된 오해련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앞서 매우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매일 매일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후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과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소희

안녕하세요, 2023년 신입공채로 입사해 미디어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된 정소희입니다. SBS에서 최고의 선배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 튼튼한 조합원...건강한 노동조합

지난 6월 9일, 목동과 상암, 탄현에서 노동조합의 계단 오르기·걷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3년 만에 열린 행사에 400명 가까운 구성원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조합원의 건강을 위해 알찬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 “2023년 상반기 SBS공정언론실천상 출품하세요”

- 추천 대상: 2023년 1월 1일~6월 30일 사이 보도, 프로그램 등 전체 콘텐츠
- 추천 기한: 7월 15일 자정까지
- 간단한 추천 사유(이름/소속/콘텐츠명/간략한 이유)
- 보내는 곳: 류란 공정방송실천위원장 (010-9400-5983)  
또는 노동조합 이메일 : suwon@sbs.co.kr

